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 유아의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Variables Related to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A Focus on Individual Variabl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서 기 남
부교수 문 혁 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 : Ki Nam Seo
Associate Professor : Hyuk Jun Moon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adership-related variables of young children. Subjects were 467 five-year-olds from the region.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eadership in young children was related to their temperament, peer interaction, verbal control modes of mothers, and home environment. Positive peer interac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유아리더십(leadership in young children), 기질(temperament), 또래상호작용(peer interaction), 언어통제유형(verbal control modes), 가정환경(home environment).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eokgok2-dong, Bucheon, K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Ⅰ. 서 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조직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리더십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속한 집단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로서, 동료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처럼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정희욱, 박병기, 최성욱, 강일국, 2003).

리더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능력이다. 또한 타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리드하여 현재의 사회에 적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적 역할을 키워나가는 기술이다(김정대, 2000). 그러므로 리더십은 효과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기술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방법을 습득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건전한 성격을 형성함으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과거 유아리더십의 개념은 성인 리더십의 초기 정의와 마찬가지로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Parten (1937)은 유아들의 놀이상황에서 타협과 협의가 아닌 명령하고 지시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만을 리더로 인정함으로써(Trawick-Smith, 1988, 재인용) 다른 아동을 지배하는 것을 리더로 보았다. 또래와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강요, 명령, 위협, 공격, 책망 등의 부정적이고 강제적인 지배전략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유아리더십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문제해결상황에서 집단의 문제를 공유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가는 공유적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유아관련 리더십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Fukada, Fukada 와 Hicks(1997)는 유아들의 자유놀이 활동 평가를 통해서 5세 유아의 리더십 구조를 밝히는 연구에서 집단놀이에서 다른 유아를 고려하는 등의 리더십 행동을 나타내는 유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의 국내연구에서 안상윤(2003)은 리더는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섬김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박선영(2001)은 협동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면서 활동 초기에는 독단적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지만 협동 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협력적 리더십의 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통한 유아 리더십 연구에서도 유아들에게 적합한 리더십을 공유적 리더십이라고 하였다(유연일, 현은자, 2004).

이외에도 유아리더십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리더와 인기아(조경서, 1992), 리더와 배척아 연구(조은숙, 1998), 리더가 형성되는 과정(박선영, 2001), 긍정적 유아리더의 특성(김민선, 2004) 등에 관한 연구와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미선, 2005; 최남례, 2006) 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인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유아와 아동의 경우에도 참여와 공유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즉 유아들도 독단적 리더의 위치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협력하고 나누는 등의 공유적 리더십으로 전환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의 셀프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는데 셀프리더십은 인간 내부의 기본적인 성향인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한다거나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책임지고 행동하는 등의 자율적인 셀프리더십이 일에 대한 열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박성민, 2002).

유아기 때부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잘 이끌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아는 스스로 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자신감을 갖고 일이 잘못되어지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감으로서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신뢰감을 갖게 된다. 리더십은 자기 내면의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가 아닌 인간 내부로부터 비롯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셀프리더십은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 때부터 발달하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김미선, 2005).

따라서 자기존중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관리하면서 내면으로부터 셀프리더십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협력과 촉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유적 리더십이 유아리더십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 필요한 미래 지향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 리더는 또래 집단에서 놀이나 활동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유아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또래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유아라고 할 수 있으며, 유아리더십은 또래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유아 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민선, 2004), 또래 집단에 있어서는 타인과 함께 융화하면서 집단에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며(이은미, 2006), 비젼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변화를 주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김미선, 2005).

이와 같이 유아리더십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사회 ·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또래유능성 및 사회적 능력 등 대인관계 리더십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하여 뜻을 이루어 나가며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지식 이외에 사랑, 나눔, 꿈, 믿음, 용기, 실천 등 좋은 가치를 배워야할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아끼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건전한 성품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역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릴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리더십 관련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관련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기는 또래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미래의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김진영(1998)은 일반적으로 유아와 성인의 관계는 수직적인 권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고 또래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우정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아들도 또래나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래 집단 내에서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배적 위치의 유아(leader)와 이를 따르는 추종아(follower)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Damon, 1979). 그러므로 발달적 측면을 생각할 때 민감성과 흡수성이 높은 유아기부터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요구되며, 유아리더십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자질을 사용하여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 영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며 교육을 통해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김정효, 2006)이라는 관점에서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은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유아의 발달에 기여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유아의 기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질은 지속성을 띄고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유아는 같은 환경적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고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으며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행동 경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아는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므로 생물학적 가능성을 인식하여 개인차의 본질로서 유아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의 사회화의 영향력만을 보는 것은 유아의 행동발달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없다(Kochanska, Murray, Jacques, Koening, & Vandegeest, 1996).

리더십 연구의 초기에는 리더가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으로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갖는가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특성이론(traits theory)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리더는 남다른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고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성을 개념화 하였다. 따라서 리더는 보통사람과는 다르게 타고난 강한 사람으로서 리더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였다(Northouse, 1997).

Walker, Berthelsen과 Irving(2001)은 유아기는 학령기에 비해 유아 개인의 기질적 특징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인차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은경(2002)은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친구들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친구들과 놀잇감을 잘 나누어 놀이하며 놀이할 때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친구들과 잘 협동하며 놀이 중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현(2005)은 기질의 하위변인중 적응성이 뛰어나고 활동적 일수록 또래와의 활동 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드물다고 하였으며, 김기영(2006)의 연구에서는 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이 리더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견해와 달리 Lamb,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은 또래와의 사회적 통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리더십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특정인만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학습되어 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더십프로그램이 유아리더십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김미선, 2005; 이은진, 2005)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Michell(1977)은 리더십이 유아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서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일차적으로 독특한 개인적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발달된다고 하였으며, 최남례(2006)는 리더십개발이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는 주장은 기본

적으로 대상을 성인으로 가정하고 나온 것이므로 유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격검사나 기질검사 등을 통해서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내재적인 성향인 기질이 유아리더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개인변인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어 온 또래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취업모의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유아에게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 및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이제까지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많은 사회화의 기능이 유아교육기관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민혜영, 1998). 그러므로 유아가 또래들과 지내는 시간도 증가되었으며 유아가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기초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접촉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또래집단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관심을 가지며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융통성과 순응성을 발달시키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므로(Elkind & Weiner, 1978) 바람직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리더십 함양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희순(1985)은 또래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들은 그렇지 못한 유아들에 비해 집단의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유아는 고립감, 불편감, 무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또한 Gottman, Gonso와 Rasmussen(1975)는 또래집단 내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못한 유아에 비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한층 유능하다고 하였으며, Dodge(1983)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공격 등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들은 상황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유아의 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일치된 입장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또래 리더와 추종아간의 상호작용 양상은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더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김민선, 2004)에서 대체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인기아 뿐만 아니라 타협이나 협의를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지배아인 경우도 또래들이 대장으로 인정하며 유아들이 또래 리더를 대장으로 인정하는 정도와 친구로서 좋아하는 정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리더십과 또래상호작용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인적, 물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는 유아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 발달해 나가고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적, 정의적 특성을 유아에게 심어주기 때문이다(박문옥, 2007). Vygotsky(1962)는 인간의 정신발달이 인간의 실제적인 행동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며 특히 유아의 발달은 언어가 내면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Bloom(1964)은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라 보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부모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선(2003)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지위지향적 통제와 인성지향적 통제 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박문옥(2007)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적일 경우 지위지향적일 때 보다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경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통제와 인성지향적 통제는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경희(2007)은 아동의 리더십과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은 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식에만 영향을 미치고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유형과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은 목표달성, 재창조, 통솔력, 인간관계, 목적의식 등 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리더십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통제 유형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결과마다 조금씩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 유아기라는 발달적 시기에 리더십 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언어통제유형은 무엇인지 판단하기위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양육방식, 즉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리더십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여러 환경변인 중 하나인 가정환경은 개인이 모든 경험을 습득하는 사회생활의 장이므로 인간의 성장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유아기의 가정환경은 유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점에서 인간의 발달과 잠재가능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ron-

fenbrenner(1979)는 모든 유기체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Bloom(1964)은 환경을 '개인에게 주어지는 조건, 힘 및 외적 자극'으로 정의하면서 어떤 경험을 개체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비하여 인간의 행동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Walberg와 Marjoribanks(1973)는 가정환경은 아동의 언어, 수, 공간 등 지적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장영애와 서용선(1983)도 가정환경 변인 중 경험의 다양성, 독립심의 육성, 발달을 돕는 자극이 유아의 사회 · 정서적 발달을 의의있게 예언해 준다고 하였다. 박현정(1992)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의 하위변인 중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이 독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은정(1998)은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언어적 환경, 정서적 분위기, 놀이자료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순자(2001)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리더십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리더아동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물리적 환경 차원과 놀이자료차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아기의 가정환경 변인은 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가며, 가정환경은 유아의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유아의 리더십 발달을 예측하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가정환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아리더십과 관련된 요인은 다양하며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가정환경 등이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유아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유아리더십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리더의 특성 및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김민선, 2004; 박선영, 2001; 조경서, 1992)가 있고, 유아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김미선, 2005; 이은진, 2005; 최남례, 2006) 및 유아의 리더십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이명숙, 2007)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김순자(2001)의 가정환경과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관련 연구(김지연, 2007; 나미순, 2006; 이은미, 2006) 등이 있다. 그러나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며,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가정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여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변인들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리더십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내적 특성인 기질 그리고 관계에서 보이는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가정환경이 각각 유아의 리더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아의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리더십은 유아 개인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1. 유아리더십은 유아의 기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2. 유아리더십은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리더십은 유아 환경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1. 유아리더십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2. 유아리더십은 유아의 가정환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개인 변인, 환경 변인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만 5세 유아 4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8개의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유아와 어머니의 자료가 누락된 183명을 제외하고 46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 아동과 가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 251명(53.7%), 여아 216명(46.3%)으로 비슷하였다. 다음으로 대상 유아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6.0세(SD = 3.71)이었으

며, 학력은 고졸이하 124명(26.6%), 전문대졸 145명(31.0%), 대졸이상이 198명(42.4%)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282명(60.4%)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일제 취업 112명(24.0%), 시간제 취업 73명(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300 ~ 400만원 미만(30.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 ~ 300만원 미만(26.8%), 400 ~ 500만원 미만(18.4%)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리더십 척도

정희옥, 박병기, 최성욱과 강일국(2003)의 초등학생용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연구(KEDI)를 근거로 김복희(2006)가 유아기 특성에 맞게 용어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리더십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분석의 기준으로 각 요인의 고유치가 1.0 이상이고, 요인 적재치가 0.5이상인 문항을 신뢰할 수 있는 문항과 요인들로 고려하였으며, 요인 적재 치에 따라 10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1은 성취감(예; 좀 어려운 활동도 끈기 있게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스스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과 관련이 있었고, 7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2는 주도력(예;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잘 사귄다)과 관련된 문항이었고, 8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3은 비전(예;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과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유아리더십은 교사의 보고에 기초하였으며,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의 Cronbach's α는 .96이며, 성취감 .94, 주도력 .87, 비전 .93이며 총 누적 분산율은 64.79%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Conw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와 Przybeck(2002)등이 생물학적 이론을 토대로 구성한 미국의 Preschool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를 바탕으로 한 '한국판 만 3-6세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 가운데 홍혜란(2008)이 기질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극추구 15문항(예; 대단히 참을성이 없다, 소란스럽고 모든 것에 참견한다), 위험회피 16문항(예;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다, 실제보다 어떤 일을 더 나쁘게 또는 위험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사회적 민감성 12문항(예;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강하게 반응한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내력 12문항(예;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꼭 끝까지 한다, 장난감 하나만으로 오랜 시간 잘 논다),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유아의 태도, 생각, 관심사, 정서를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 의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함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자극추구 .88, 위험회피 .88, 사회적 민감성 .69, 인내력 .72로 나타났다.

3) 또래상호작용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antt와 Sutton-Smith(1998)의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를 수정·보완하여 최혜영(2004)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 12문항(예;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 8문항(예; 친구를 돕는다,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유아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을 근거로 '전혀 아니다' 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아동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83,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94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검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Bernstein(1971)과 Cook-Gumpers(1973)의 연구 및 국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혜숙(1997)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명령지향적 통제(예; 신발이 그게 뭐니? 똑바로 해놓고 와, 잔소리 말고 빨리 갖다와. 안가면 혼날꺼야), 지위지향적 통제(예;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지, 인사를 잘해야 착한 사람이지), 인성지향적 통제(예;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병균도 같이 먹게 되잖니, 네가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겠다)에 대해 각 25문항씩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가깝고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근거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의 1점에서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의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언어통제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명령적 통제 .94, 지위적 통제 .94, 인성적 통제 .94로 나타났다.

5) 가정환경검사

가정환경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취학 전 아동용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을 사용하였다. 가정환경검사(HOME)는 Syracuse대학교에서 유아의 가정환경의 다양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Inventory of Home Stimulation〉을 장영애(1981)에 의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 · 보완되어 타당화 연구(이은해, 장영애, 1982)가 이루어진 도구이다.

가정환경 설문문항에 대해 본 연구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분석의 기준으로 각 요인의 고유치가 1.0 이상이고, 요인 적재치가 0.5이상인 문항을 신뢰할 수 있는 문항과 요인들로 고려하였으며, 요인 적재 치에 따라 7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1은 놀이자료(예; 블록이나 조립식 완구가 있습니까, 악기나 장난감이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었고, 7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2는 정서적 분위기(예; 어머니는 유아가 이야기 할 때 주의깊게 잘 들어 줍니까, 어머니는 유아에게 말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 합니까)와 관련된 문항들이며, 3항목으로 구성된 요인 3은 독립성 육성(예; 어머니는 유아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합니까, 어머니는 유아가 옷을 스스로 입게 합니까)과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본 검사는 총 17문항으로 재구성되었고, 전체의 Cronbach's α는 .96이며, 놀이자료 .90, 정서적 분위기 .82, 독립성 육성 .70이며 총 누적 분산율은 57.13%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하여 가정의 일반적인 상황과 어머니가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 의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가정환경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광명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기관 만 5세 유아 60명과 어머니 60명, 그리고 해당 담임교사 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내용, 응답 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용 설문지인 가정환경검사, 언어통제유형검사는 교사를 통해 가정에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 하였고 유아의 리더십, 기질, 또래상호작용 설문지는 유아에 대해 교사가 응답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도구의 문항별 이해도를 파악하여, 연구대상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과 응답에 무리가 있는 내용을 수정 · 보완한 후 완성된 두 가지 설문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서울 · 경기지역에 위치한 8곳의 유아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21개 학급의 교사를 통하여 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50부를 해당학급의 담임교사에게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의 가정환경,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검사를 유아 편으로 각 가정에 배부한 후 회수하였으며, 부모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대하여 유아의 리더십, 또래상호작용, 기질에 대한 교사 평정을 실시하였다. 최종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자료가 함께 이루어진 467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의 문항들이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기준으로 각 요인의 고유치가 1.0 이상이고, 요인 적재치가 0.5이상인 문항을 신뢰할 수 있는 문항과 요인들로 고려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 2〉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3〉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개인 변인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1) 유아의 기질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아의 기질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는 성취감(각각 $r = -.55$, $p < .001$; $r = -.35$, $p < .001$), 주도력(각각 $r = -.12$, $p < .05$;

〈표 1〉 유아의 기질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N = 467$)

유아리더십 / 유아의 기질	성취감	주도력	비전	리더십총점
자극추구	−.55***	−.12*	−.26***	−.38***
위험회피	−.35***	−.58***	−.37***	−.46***
사회적 민감성	.28***	.49***	.39***	.41***
인내력	.58***	.51***	.58***	.62***

*$p < .05$. ***$p < .001$.

r = −.58, p < .001), 비전(각각 r = −.26, p < .001; r = −.37, p < .001)과 리더십 총점(각각 r = −.38, p < .001; r = −.46, p < .0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성취감(각각 r = .28, p < .001; r = .58, p < .001), 주도력(각각 r = .49, p < .001; r = .51, p < .001), 비전(각각 r = .39, p < .001; r = .58, p < .001)과 리더십 총점(각각 r = .41, p < .001; r = .62, p <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기질이 자극추구를 잘하고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성취감이 낮고 주도력과 비전이 낮으며 리더십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사회적으로 민감성이 높고 인내력이 높은 기질일수록 성취감, 주도력, 비전이 높고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표 2〉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성취감(r = .62, p < .001), 주도력(r = .63, p < .001), 비전(r = .52, p < .001)과 리더십 총점(r = .65, p < .0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은 성취감(r = −.49, p < .001), 주도력(r = −.12, p < .05), 비전(r = −.23, p < .001)과 리더십 총점(r = −.35, p < .001)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가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성취감이 높고 주도력이 높으며 비전이 높고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아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리더십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N = 467)

유아리더십 / 또래상호작용	성취감	주도력	비전	리더십 총점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62***	.63***	.52***	.65***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49***	−.12*	−.23***	−.35***

*p < .05. ***p < .001.

2. 유아의 환경 변인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지향적 통제는 성취감(r = −.19, p < .001), 주도력(r = −.16, p < .01), 비전(r = −.17, p < .001), 리더십 총점(r = −.19, p < .001)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인성지향적 통제는 비전(r = .09, p < .05)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명령지향적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는 성취감이 낮고, 주도력과 비전이 낮으며 리더십이 낮고 어머니들이 인성지향적인 언어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는 비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위지향적 통제는 유아리더십 하위영역과 총점에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표 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N = 467)

	성취감	주도력	비전	리더십총점
명령지향적 통제	−.19***	−.16**	−.17***	−.19***
지위지향적 통제	−.08	−.03	−.05	−.06
인성지향적 통제	.04	.08	.09*	.07

*p < .05. **p < .01. ***p < .001.

2) 가정환경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가정환경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정환경의 하위 영역에서 독립성 육성은 성취감(r = .10, p < .05), 주도력(r = .12, p < .01), 비전(r = .15, p < .01), 리더십 총점(r = .13,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적 분위기와 놀이자료는 성취감(각각 r = .22, p < .001; r = .16, p < .01), 주도력(각각 r = .20, p < .001; r = .18, p < .001), 비전(각각 r = .16, p < .01; r = .19, p < .001), 리더십 총점(각각 r = .21, p < .001; r = .19, p < .0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즉, 가정환경이 독립성을 육성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일수록 놀이자료가 풍부할수록 유아의 성취감이 높고 주도력과 비전이 높고 유아리더십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가정환경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

(N = 467)

	성취감	주도력	비전	리더십총점
독립성 육성	.10*	.12**	.15**	.13**
정서적 분위기	.22***	.20***	.16**	.21***
놀이자료	.16**	.18***	.19***	.19***

*p < .05. **p < .01. ***p < .001.

3. 유아리더십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그리고 가정환경 변인들의 영향력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독립변인 중 긍정적 또래상호작용(β = .32), 인내력(β = .24), 위험회피(β = −.17), 사회적 민감성(β = .16), 부정적 또래상호작용(β = −.12), 자극추구(β = −.11), 명령지향적통제(β = −.10)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언어통제 유형에서 지위지향적통제와 인성지향적통제, 가정환경에서 독립성 육

성과 정서적 분위기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자극추구를 덜하고 위험회피를 덜 할수록,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인내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덜 할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를 하지 않을수록, 가정환경에서 놀이자료가 풍부할수록 유아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은 유아의 리더십을 62% 설명해주었다.

〈표 5〉 유아리더십에 대한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

독립변인 \ 유아리더십		총점		
		B	*SE B*	β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15	.07	−.11*
	위험회피	−.25	.05	−.17***
	사회적 민감성	.30	.07	.16***
	인내력	.47	.07	.24***
또래상호작용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37	.05	.32***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13	.05	−.12**
언어통제유형	명령지향적 통제	−.09	.05	−.10*
	지위지향적 통제	.03	.05	.04
	인성지향적 통제	.03	.04	.04
가정환경	독립성 육성	.05	.04	.04
	정서적 분위기	.01	.05	.01
	놀이자료	.10	.04	.08*
	R^2		.62	
	F		60.93***	

*p < .05. **p < .01.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개인 변인인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과 환경 변인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이 유아의 리더십과 각각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관련 변인들을 통합하여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인 변인 중 유아의 기질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충동적인 자극추구를 적게 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으며,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인내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교사로부터 리더십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신체적 에너지가 활발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주의전환성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의 느낌과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리더가 되는 등 유아의 기질에 따라 또래집단에서 유아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한 Thomas, Chess와 Birch(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홍혜란(2008)의 연구에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정서어휘가 풍부하고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유아의 나누기, 도움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영숙(2006)의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 가운데 인내력이 높고 자극추구 성향이 덜 할수록 유아의 긍정적 적응행동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와 남영옥(2006)의 가정환경변인 및 기질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이 상관이 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기질의 개인차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 Walker et al.(2001)의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리더십이 관련이 있음을 지지해 준다. 이는 자극추구 행동을 하는 유아들은 상황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래 간에 갈등을 자주 빚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게 되므로 리더가 되기보다는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험을 회피하는 행동특성을 가진 유아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므로 매사에 수동적이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되며 거부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arker-Cohen, Nina, Richard와 Bell(1988)의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유아들은 높은 적응성과 활동성, 지속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질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뛰어나고 활동적일수록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동적이지 않고 인내심이 많을수록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킴으로서 또래와의 활동 시 협력하고 도와주며 또래들과 함께 융화하면서 또래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더는 남다른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특성이 일정시대나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성을 개념화한 특성이론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특성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욕구, 동기, 가치관, 능력 등과 같은 내재적인 속성을 포함하여 다름 사람과 차별되는 속성들의 집합을 말한다. 김민선(2004)은 유아 리더의 유형을 긍정적인 리더와 부정적인 리더로 나누어 긍정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통솔력, 상황파악능력, 협동심, 포용력, 결단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유머감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리더 유아들의 특징은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 중 충동적이거나 무절제 등의 행동을 적게 하고, 수줍음이 없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적게 느끼며,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인내력이 있는 유아가 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정적인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서는 유아가 평소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과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몰두하며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유아의 개인변인 중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유아리더십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는 교사로부터 리더십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성취감이 높고 주도적이며, 비전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리더십 총점, 성취감, 비전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교사로부터 리더십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성취감이 낮고, 비전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리더십은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동양상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행동이 많은 유아에게 친사회적 리더십이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많은 유아는 사회적 지배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김기영(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Dodge(1983)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 등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들은 상황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또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사회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성숙한 사회인지적 기능은 유능한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한 김수정(2002)의 설명과 또래집단 내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한층 유능하다고한 Gottman *et al.*(1975)의 주장은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리더십과 정적이 상관이 있음을 지지해 준다.

이는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아는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유아는 또래로부터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유아는 또래관계에 대해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다 편안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들은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거나 자기회의 또는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최정희(199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아는 놀이를 방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부적절한 해결방안을 사용하는 악순환을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유아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되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맺는데 있어 친구의 요구나 요청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환경 변인 중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유아리더십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리더십이 높으며, 특히 성취적이고 비전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아버지가 명령지향적일 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송해영(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그리고 명령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도혜숙(1997)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통제와 인성지향적 통제는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미경(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근욱(2005)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장을 어렵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김성일과 김남일(2001)은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면 자녀의 목표지향성, 대인관계, 대인역할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이 리더십 하위영역 중 어려운 활동도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끝까지 완성하는 성취감, 친구들과 잘 사귀며 모든 활동에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통제 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하며, 이는 아동이 언어를 매개로 사회적 상황을 규제하고 사회적, 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방향감을 설정하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한 Bernstein(1971)의 주장과 같이 유아의 행동을 체벌, 위협, 명령 등으로 다스리는 명령지향적 언어통제는 유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해결책을 즉각적이고 제한적으로 제시하며 유아에게 역할재량권이 없으므로 유아 자신이 행동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강제적인 언어통제방법을 사용하면 유아 스스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유아가 공격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적 동기, 의도와 성향에 호소하여 유아가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서 유아입장에서 자녀의 이해를 돕는 언어 형태인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형태는 자녀에게 행동 선택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하게 해주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합리적인 언어모형을 습득함으로서 또래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등 유아의 리더십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리더십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때 명령지향적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유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유아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킴으로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사회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으로 이끌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환경변인 중 가정환경과 유아리더십과의 관계는 가정환경이 독립성을 육성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이며, 놀이자료가 풍부할수록 교사가 평정한 유아리더십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아동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물리적 환경 차원과 놀이자료차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자료가 리더아동과 관련이 있다는 김순자(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가정환경변인 중 언어적 환경, 정서적 분위기, 놀이자료가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김은정(1998)과 독립성 육성, 놀이자료,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정서적 분위기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해 주는 중요변인이라고 한 장영애(198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풍부한 학습자료가 가정에 다양하게 준비되고, 언어환경이 풍부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등 가정의 환경이 바람직할 때 유아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김영숙, 1999)는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와 놀이자료가 유아리더십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온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율성을 격려해주는 것은 아동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Putallaz와 Heflin(1990)의 주장과 같이 독립성 육성은 유아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유아를 애정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는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낌으로서 안정적 애착을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또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래의 반응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고 볼 수 있다.

또한 놀이와 게임은 사회성발달을 도모하며 타인과의 공존을 학습하며 사회구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Weininger(1979)와 전반적인 심리적 · 물리적 환경은 가정의 편안한 분위기와 함께 안정적인 심리적 자극을 제공하고 책과 놀잇감, 놀이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원영미, 박혜원과 이귀옥(2004)의 주장과 같이 놀이자료를 통해 유아에게 풍부한 탐색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놀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성취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환경은 유아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해주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서 유아의 리더십 발달을 촉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환경이 유아의 리더십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풍부한 놀이 환경에서 자란 유아가 리더십이 높으며, 부모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격려해주고, 자녀를 이해해주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유아리더십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과 환경 변인으로서 유아의 가정환경,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기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기질과 또래상호작용 등 유아의 개인변인이 유아의 리더십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이 가정환경과 언어통제유형등

유아의 환경 변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Kyrios와 Prior(1990)의 연구에서 유아의 행동적응에 대한 유아의 기질, 스트레스, 가족 요인의 영향을 비교해 본 결과 유아의 행동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응성과 조절과 같은 기질적 특징이었다는 연구와 이찬숙(2008)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 가정환경, 지역사회변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중 적응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정서조절능력과 같은 유아의 개인변인이 또래유능성을 예언해주는 정도가 높았다는 임연진(2002)의 연구와 유아의 개인변인인 정서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권연희(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기는 학령기에 비해 유아 개인의 기질적 특징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인차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 Walker *et al.*(2001)의 주장과 같이 유아기에는 리더십에 대해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이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증가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유아들이 일찍 유아교육기관을 접하게 되고 하루 중의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게 되면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상호작용이 유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리더십과 아동의 개인적 변인 모두 동일한 정보원인 교사가 측정하였으므로 공유된 방법 변량(shared method variance)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및 놀이자료가 유의하게 나온 것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가정환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기질과 또래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에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이미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자극도 중요함을 의미하며, 유아의 환경 변인이 유아의 개인 변인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이지희(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변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이 두 변인이 긍정적인 상향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리더십은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기도 하지만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으므로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여 리더십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자료 등 교육적인 환경구성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임의 표집에 의해 선정한 서울·경기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한정된 유아와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로서 질문지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관찰과 면접과 같은 심층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질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변인이외에도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 및 유아–교사관계 등 다양한 변인을 고찰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리더십 관련 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유아리더십에 대한 초기 발달의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리더십이 유아의 기질, 또래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가정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유아의 리더십 발달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즉 유아개인에게만 초점을 두어 유아의 리더십 향상을 시도했던 지금까지의 대다수 중재 프로그램들이 충분치 못한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유아의 기질 및 또래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고경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리더십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기영(2006). 또래상호작용 속에서의 유아리더십. 숙명여자대학교 원격유아교육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선(2005). 유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민선(2004). 긍정적 유아 리더의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복희(2006). 농촌지역유아의 공동체리더십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성일,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1), 84-85

김수정(2002). 집단놀이치료를 통한 사회성증진 보육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순자(2001). 아동의 가정환경변인과 리더십간의 관계분석. **가족복지학회지, 6**(2), 5-23.

김영숙(1999).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3**(1), 69-98.

김은정(1998).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대(2000). 청소년 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개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선(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효(2006). **아동리더십**. 서울: 교육과학사.

김지연(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영(1998). 유치원에서 또래 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나미순(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리더십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영옥(2006). 가정환경변인 및 기질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15**(1), 279-292.

도혜숙(1997). 부모의 언어총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문옥(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선영(2001). 유아의 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의 형성과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민(2002). Self-Leadership 프로그램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현정(1992). 가정환경과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희순(1985). 6,7세유아의 친구관계 개념발달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해영(2007).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상윤(2003). **자기주도적 리더십능력 개발**. 논산: 건양대학교출판.

원영미, 박혜원,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유연일, 현은자(2004).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리더십. **유아교육연구, 24**(2), 270-271.

이근욱(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양상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명숙(2007). 유아 셀프 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미경(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숙(2006). 유아의 적응행동 및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은경(2002).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은미(2006). 유아리더십과 부모양육태도 관계 분석.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은진(2005). 유아 대인관계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해, 장영애(1982).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20**(1), 49-63.

이지희(2008).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찬숙(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장영애(1986).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특성간의 인과모형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영애, 서용선(1983).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와 학령전 아동의 발달수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1), 1-10.

정 현(2005). 유아의 기질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정서지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희욱, 박병기, 최성욱, 강일국(2003).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조경서(1992). 또래집단의 집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은숙(1998). 리더와 배척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남례(2006). 유아 서번트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정희(1998). 유아의 또래수용도와 감정조망 수용능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혜영(2004). 아동의 또래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혜란(2008). 유아의 기질, 정서능력, 친사회적 행동발달 및 어머니의 친사회성과 관련된 양육신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Bernstein, B. A.(1971). *Class, codes, and control: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Vol. 1).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Bloom, B. S.(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Springer-Verlag.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hn, D. A., Patterson, C. F., & Christopoulos, C.(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Damon, W.(1979).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CA: Jossey-Ba! ss.

Dodge, K. A.(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Elkind, D., & Weiner, I. B.(1978). *Development of child*. NY: Wiley & Sons.

Fukada, S., Fukada, G., & Hicks, J.(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4), 481-186.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Kochanska, G., Murray, K., Jacques, T. Y., Koening, A. L., & Vandegeest, K. A.(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Kyrios, M., & Prior, M.(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ral adjustment of 3-5-year-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1), 67-93.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Lamb, M. E., Hwang, C. P., Brookstein, F. L., Broberg, A., Hult, G., & Flodi, M.(1998). Determinants of social competence in swedish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70.

Mitchell, A.(1977). Reflections on early childhood leadership development: Finding your own path. In S. L. Kagan, & B. T. Bowman(Eds.), *Leadership in early care and education*(pp. 85-96). Washington, DC: NAEYC

Northouse, P. G.(1997)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Parker-Cohen., Nina Y., Richard Q., & Bell.(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8-192.

Putallaz, M., & Heflin, A. H.(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189-216.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as, A., Chess, S., & Birch, H.(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zel.

Trawick-Smith, J.(1988). Play Leadership and

Following behavior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3*(5), 51-59.

Vygotsky, L. S.(1962). *Thought and language*. New York and Cambridge: Wiley and M. I. T. Press.

Walberg, H., & Marjoribanks, K.(1973). Differential mental abilities and home environment : A canon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63-368.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Weininger, O.(1979). *Play and education: The basic tool for early childhood learning*.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접 수 일 : 2009년 1월 5일
심사시작일 : 2009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9일